

독자 여러분의 2018 라이징 스타 (Rising Star)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인들이 등장하는 시대, 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예비 스타들이 있습니다. '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유난히 빛을 내는 스타는 누구일까요. 스포츠동아 독자 여러분과 누리꾼의 냉철한 눈으로 그 '떡잎'을 가려주세요.

※설문은 스포츠동아 인터넷 홈페이지 (<http://sports.donga.com>)에서 12월20일(수요일)부터 31일(일요일)까지 12일동안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에릭남, 이쯤 되면 '할리우드 친선대사'

할리우드 영화 소개 역할 특목 "실력 차이 확인"...섭외 경쟁도

가수 에릭남이 한국 관객으로 향하는 할리우드 영화와 배우들을 돕는 가고 역할을 특목하고 있다. 한국에 작품을 알리려는 할리우드 제작진이 가장 먼저 찾는 인물로 꼽히면서 몸값까지 높아지고 있다.



에릭남

본업은 가수이지만 에릭남을 향한 영화계 선호도는 상당하다. 할리우드 유명 스튜디오들이 신작을 내놓고 국내 관객을 공략할 때마다 어김없이 에릭남을 찾았기 때문이다.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대학까지 마친 에릭남은 원어민 영어를 구사하고, 순발력과 친화력까지 갖춰 할리우드 영화를 국내에 소개하려는 영화사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에릭남은 3월 '미녀와 야수'와 '콩 스킵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5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7월 '스파이더맨: 홈커밍', 11월 '저스티스 리그' 등의 주연 배우들과 국내 관객의 만남을 연결하는 토크 진행자로 활약했다. 올해 개봉한 할리우드 대작들이 빠짐없이 그의 '입'을 거친 셈이다.

에릭남과 할리우드 배우들의 인터뷰는 관객의 반응과 공감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포털 사이트 생방송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각 영화와 배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는 물론 순발력이 없다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이벤트다.

에릭남과 몇 차례 할리우드 영화 이벤트를 진행한 마케팅 관계자는 "보통 질문을 미리 준비해도 배우들과 즉흥적으로 여러 대화를 나눠야 하는 순간이 많다"며 "그럴 때 에릭남의 실력은 더 빛이 난다. 상황 대처능력은 물론 낯선 배우들과 어우러지는 친화력도 탁월하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에릭남은 할리우드 스타들과도 친분을 쌓아가고 있다. 클레이 모레츠 등 SNS를 통해 확인된 그의 '마당발 할리우드 인맥'의 배경에는 남다른 친화력도 한 몫을 한다. 또 다른 영화 마케팅은 "아마도 에릭남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에릭남 외에도 영어실력이 뛰어난 몇몇 스타가 할리우드 영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지만 "실력 차이가 확인하다"는 게 관련 행사를 진행해온 사람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대체불가'의 매력은 몸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에릭남은 행사당 수천만 원의 개런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남은 지난해 할리우드 제작진으로부터 영화 출연 섭외까지 받았다. 오디션을 통과해 할리우드에서 연기자로 활동할 기회를 잡았지만, 미리 정해놓은 국내 음반활동 일정을 위해 진출 기회를 뒤로 미뤘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2018년 스크린 '워맨스'를 기대해

여배우들 호흡, 내년 흥행 키워드로

김희애·김혜수 등 어우러진 '허스토리' 손예진 '협상' 김혜수 '국가부도의 날' 공효진 '뽕반' 등 여배우들 활약 기대

올해 스크린 흥행의 키워드로 '브로맨스'가 꼽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여배우들의 호흡이 빛내는 '워맨스'의 매력을 담은 영화들이 관객을 찾아간다. 최근 늘어난 여배우들의 스크린 활약 분위기와 맞물려 새로운 바람을 만들지 주목된다.

내년 개봉을 준비하는 영화들 가운데 여자들의 믿음과 우정을 다루거나 여배우가 주도적으로 극적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워맨스'의 작품은 여러 편이다. 그 가운데 실화를 다룬 '허스토리'(감독 민규동·제작 수필름)가 대표작으로 꼽힌다. 김희애를 중심으로 김혜수와 문숙, 이유영 등 다양한 세대의 여배우들이 어우러져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992년부터 7년간 벌인 전무후무한 재판을 그린다.

11월 촬영을 마치고 후반기 작업이 한창인 '허스토리'는 여성들이 연대해 이룬 극적인 사건을 여배우들이 완성했다는 사실에서 눈길을 끈다. 이에 참여한 배우들의 각오 또한 남다르다. 김희애는 "기적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었지만 든든한 선배 연기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더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동안 한국영화가 주목한, 일제강점기 배경의 여성 혁명가들 이야기도 찾아온다.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박현영, 임일근, 김단야의 동지인 세 명의 여성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의 삶을 다룬 영화가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출간된 소설 '세 여자'를 원작으로 삼았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19일 "우리 역사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자 각각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진 인물들의 영화화 작업"이라며 "아직 기획 단계이지만 흥미로우면서도 의미 있는 시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배우들의 도전 역시 내년 스크린에서 더욱 속도를 낸다. '우편파워'를 예고하는 영화들도 여러 편이다. 최근 촬영을 시작한 김혜수 주연의 '국가부도의 날'(감독 최국희·제작 영화사집)과 내년 개봉하는 손예진의 '협상'(감독 이종석·제작 JK필름), 같은 시기 촬영에 돌입하는 공효진의 '뽕반'(감독 한준희·제작 호두엔유퍼픽스) 등

이 주목할만한 작품이다. 한계를 두지 않는 과감한 도전 속에 한국영화 속 여성 캐릭터 역시 다양한 개성을 갖춘 인물로 확대되고 있다.

여배우들의 도전은 한국영화에 처음 등장하는 매력적인 캐릭터의 탄생을 이끈다. 김혜수는 한국영화에서 처음 다뤄지는 IMF의 실상을 완성한다. 합리적인 판단력과 강한 소신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역할을 맡은 그는 국가부도 사태가 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몸소 그려낼 예정이다.

손예진과 공효진의 변화도 눈에 띈다. 이들은 각각 범죄액션과 스릴러 장르를 이끌면서 관객에 새로운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새해 안방극장 '로맨스물'이 대세

'라디오 로맨스' '키스 먼저 할까요' '러브게임' '마성의 기쁨' 등 잇따라

새해 안방극장은 추위를 녹일만한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잇달아 공개한다. 2017년 드라마를 장악한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 등 전문직의 세계를 다룬 장르물이 잠시 쉬어갈 즈음 달달하고 가슴 설레는 이야기 등이 장한다.

1월부터 지상파 3사는 월화드라마로 일제히 로맨스 장르를 내세워 시청자 공략에 나선다. KBS 2TV '라디오 로맨스'는 윤두준과 김소현이 주인공을 맡아 아날로그 감성의 로맨스를 보여준다. 두 사람은 각

각 톱스타와 라디오 작가 역을 맡아 대본 없는 야무졌도 못하는 톱스타가 작가의 대본을 통해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최진혁과 송하윤이 주연하는 MBC '마성의 기쁨'은 기억장애를 앓고 있는 천재 의사가 우연한 기회에 여배우를 만난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에 빠지는 로맨틱 코미디다. 그동안 각 잡힌 캐릭터만 맡았던 최진혁의 다소 풀어진 모습과 올해 상반기 KBS 2TV '쌈, 마이웨이'로 도약한 송하윤의 조합으로 기대를 높인다.

윤두준과 김소현, 최진혁과 송하윤이 풋풋하고 통통 튀는 젊은 세대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SBS '키스 먼저 할까요'는 40대 중년 시청자에게 짜릿한 사랑의 감정을 일깨워준다. 2015년 SBS '에인있어'로 여성 시청자의 지지를 받았던 배우미 작가의 차기작으로, 더 이상 사랑을 바라지 않는 극과 극의 시선을 지닌 남녀가 주인공이다. 감우성 김선아 김성수 예지현 오지호 등이 드라마를 이끈다.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사랑도 그려진다. 1월 MBC에서 방송하는 '러브게임-위대한 유혹'은 상류층 청춘남녀가 인생의 전부를 위협한 사랑게임에 내던지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그린다. 2003년 배웅준과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의 원작이 됐던 프랑소 소설 '위대한 관계'를 각색한 작품이다. 주인공으로 여진구가 캐스팅돼 출연 여부를 최종 조율 중이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현장.jpg



'역력'으로 관객 끌어모을까?

"초능력 발사!" 배우 류승룡(왼쪽)과 심은경이 19일 서울 CGV입구에서 열린 영화 '역력' 제작보고회에서 코믹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내년 1월말 개봉하는 영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만으로 물건을 움직이는 초능력이 생긴 아빠(류승룡)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딸(심은경)을 위해 역력을 사용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연출은 지난해 1100만 관객을 모은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맡았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숫자뉴스



배우 박진희가 판사 남편과 거주하는 전남 순천의 자택 평수. 박진희는 18일 방송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소박한 결혼생활을 소개했다. 박진희는 2014년 5세 연하와 결혼했으며, 작년 7월 첫 아이로 딸을 낳았다.

#해시태그 컷



잘생긴 남자...부러운 남자

키 크고 조각같이 생긴 남자가 있다. 이 남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볼 때마다 놀란다. 또 다른 한 남자가 있다. 잘 생긴 남자보다 조금 '덜' 잘 생겼다. 이를 부러워하며 하염없이 쳐다보더니 "잘 생기면 다냐?"고 묻는다. 자신이 얼마나 잘 생겼는지 알고 있는 남자가 대답한다. "응, 다야!" 영화 '강철비'에서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정우성과 박도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정연 기자

#스포츠동아 #강철비 #정우성 #박도원 #브로맨스

이 노래

■ 머라이어 캐리-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연금'



해마다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새 노래가 쏟아지지만, 매년 사랑받는 크리스마스송은 따로 있다.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경쾌한 리듬에 친숙한 멜로디와 노랫말, 거기에 머라이어 캐리의 시원스런 창법이 잘 어우러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띄워준다.

1994년 발표된 이 노래는 23년이 흐른 올해에도 가장 사랑받는 크리스마스송이다.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 수록곡으로, 발매 후 매 크리스마스시즌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빌보드차트에 오르고 있다. 올해 12월27일자 빌보드 핫100(싱글차트)에서도 이 노래는 11위에 올랐다. 한국에서도 매년 12월 주요 음원사이트의 팸 차트 상위권을 차지한다. 19일 현재 음원사이트 멜론의 해외팝음악-스테디셀러 차트에서는 2위에 올라 있다. 작년에도 멜론 팸 차트 정상에 차지하고 종합차트에서도 10위권에 올랐다.

영국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2017년 현재까지 세계적 음악스트리밍사이트 스포티파이에서 만 약 2억1000만 회 재생됐다. 23년간 로열티 수익만 모두 6000만 달러(약 657억원)에 이른다.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160만장 이상 판매되었으며, 2016년에는 레드 컬러 바이닐이 발매되는 등 다양한 버전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머라이어 캐리는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와 동명의 어린이 도서를 발간해 75만부 이상을 팔기도 했다.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머라이어 캐리가 프로듀서 월터 아파나시프와 공동 작곡했다. 머라이어 캐리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크리스마스 연금'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